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박영임¹⁾ · 유경희²⁾ · 방경숙³⁾ · 안경주⁴⁾ · 이선옥⁵⁾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용 학문으로서 이론과 실무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함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며,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임상현장과 대학 간에는 교육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Allen, 2000),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론교육과 임상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이나 신규 간호사의 실무 적응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의 하나이며(박정혜, 전인숙, 2008; 황선영 등, 2002), 실무에 대한 자신감 저하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도 연관되어 간호교육에서의 실무능력 증진 전략이 간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교수들이 임상현장의 변화를 습득하고 현실감각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습교육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교육능력과 실무능력이라고 하였다(Hickey, 2010; Knox & Mogan, 1985). 이렇듯 간호학 전공의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과는 달리 간호학 교수들은 학교와 임상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위해 임상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교수 경력이 더해 갈수록

임상실무의 변화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학 교수의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임상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학 교수의 임상실습이 제시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많은 연구들에서 교수들의 임상연수가 추천되고 있다(Hickey, 2010). 그러나 Williams와 Taylor (2008)는 임상연수를 경험한 교수들의 경험을 탐색한 결과 시간부족, 과도한 업무, 임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부여 부족 등 많은 제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교수들에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임상실무를 개발하거나 임상과의 협력 연구 등 다른 대안 모색도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Elliott와 Wall (2008)의 주장에 의하면 간호학 교수의 임상연수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실정이며, 임상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연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학 교수의 임상연수는 교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교육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나(Becker et al., 2007),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연수의 표준화와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ogan, Crooks, & Durrant, 2008).

국내에서도 한국간호교육학회에서는 지난 16년간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기마다 진행함으로써 국내 간호학 교육의 실무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과학회의 분과 학회별로도 방학을 이용한 교수 임상연수

주요어 : 교수, 임상연수, 만족도, 교수효능감

*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학회 정책연구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 1)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2)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 청주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antheresa@cju.ac.kr)
-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투고일: 2012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있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경험자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단 참여했던 연수자의 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연구, 실무는 전통적으로 간호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축으로 일컬어지므로(Newland & Truglio-Londrigan, 2003), 교수임상연수는 교수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실무에 대한 자신감은 교수의 전반적인 효능감 증진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간호학에서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이론이 제시된 이후 주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중재의 효과변수로 많이 측정되어 온 개념인데, 교수자의 효능감 역시 교수효과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수효능감은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 수업전략에 대한 조절감, 학생에 대한 리더십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황은영, 2006), 최신의 임상 현장에의 노출은 교수의 간호학 지식과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수업전략을 개발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교육학회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교수효능감과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 교수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학 교수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교수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간호학 교수 중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4회 실시한 한국간호교육학회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152명의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자 중 2회 이상 중복 참여한 교수 31명을 제외하여 실제 총 대상자는 121명이었다. 설문지를 이메일로 배부한 후 다시 회수한 결과 73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여 수거율은 60.3%였고, 본 연구에서 73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연수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도 도구는 정호준(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 설문지를 본 연구자들이 교수임상연수에 적합하도록 문항내용을 바꾸어 15문항의 만족도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 운영에 관한 5문항, 연수교육내용에 관해 5문항, 연수프로그램 후 결과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호준(2010)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또한 점수는 최하 15점부터 최고 75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이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교수자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황은영,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는 황은영(2006)이 개발한 도구로 21문항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 8문항, 수업전략에 대한 조절감 6문항, 학생에 대한 리더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세 영역별로 .89, .86,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5으로 나타났다. 총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 수집은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 121부를 배포하였으며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수거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을 알려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73명(회수율 60.3%)이었고 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N=73)

General characteristics	n(%)	
Age (year)	Less than 40	16(21.9)
	41 ~ 50	33(45.2)
	More than 51	24(32.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ar)	Less than 5	47(64.4)
	6 ~ 10	14(19.2)
	More than 11	12(16.4)
Period of resignation from clinical practice (year)	Less than 5	16(21.9)
	6 ~ 10	7(9.6)
	More than 11	50(68.5)
Experience as nursing faculty (year)	Less than 5	31(42.5)
	6 ~ 10	12(16.4)
	More than 11	30(41.1)
Position	Full-time lecturers	21(28.8)
	Assistant professors	21(28.8)
	Associate professors	14(19.2)
	Professors	17(23.2)
Major area	Adult Nursing	31(42.5)
	Biological Nursing	5(6.8)
	Community health nursing	3(4.1)
	Fundamental Nursing	18(24.7)
	Maternity Nursing	7(9.6)
	Mental health nursing	2(2.7)
	Nursing management	6(8.2)
	Pediatric Nursing	1(1.4)
Consistent with major	Consistent fully	33(45.2)
	Consistent partially	33(45.2)
	Never match	7(7.6)
Clinical training institut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University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27(37.0)
	Regional university hospitals	34(46.6)
	Secondary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3(4.1)
	Regional secondary hospitals	9(12.3)
Number of participation	Once	22(30.1)
	Twice	22(30.1)
	Three times or more	29(39.8)
Registration fee	Support of colleges	48(65.8)
	One's own charge	25(34.2)
Goal of participation	Helpful in lecture	42(57.5)
	Help to guide clinical training	19(26.1)
	Self-development	12(16.4)
Points for improvement	Extend the other specialties	32(43.8)
	Overload of tuition fee	13(17.8)
	Inconvenient facilities	13(17.8)
	Extend the period	12(16.5)
	None	3(4.1)
Contents to wish	Observation of bedside care	34(46.5)
	Observation of therapeutic procedures	31(42.5)
	EMR system	4(5.5)
	Case study of clinical nurse specialists	4(5.5)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 χ^2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7.04±7.45세로 만 29세~62세의 범위였으며, 73명 모두 여성이었다. 대상자들의 임상 경력은 평균 6.14±5.82년이었고 임상 현장을 그만둔 지 평균 16.42±10.20년이 되었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의 교육 경력은 11.59±11.10년이었으며, 직급별 분포는 조교수 21명(28.8%)과 전임강사 21명(2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영역은 성인간호학 전공교수가 31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임상실습병원 분포는 지방 대학병원 34명(46.6%), 수도권 대학병원 27명(3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참여횟수는 3회 이상이 29명(39.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비용은 학교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48명(65.8%)으로 가장 많았다. 연수프로그램과 대상자의 전공일치 여부는 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33명(45.2%)과 약간 일치하는 경우 33명(45.2%)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7명(9.6%)이었고 전공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병원에 가고 싶어서 3명, 일정이 맞아서 3명, 흥미로울 것 같아서 1명으로 응답하였다.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 '강의에 도움이 되므로' 42명(57.5%), '실습지도에 도움이 되므로' 19명(26.1%), '자기개발을 위해' 12명(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임상연수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해 전공분야 확대를 원하는 응답이 32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수병원에 바라는 점으로는 직접간호를 관찰하고 싶다는 의견이 34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을 관찰하고 싶다는 의견도 31명(42.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교수들의 교수 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들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총점은 평균 58.19±8.54(항목 평균 3.88±0.5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반적 프로그램운영 영역 평균 15.49±2.64점(항목 평균 3.87±0.66), 연수프로그램 내

용 영역 평균 22.27±3.75점(항목 평균 3.71±0.62), 프로그램 참여결과 영역 평균 20.42±3.19점(항목 평균 4.08±0.64)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나이, 임상경력, 임상을 그만둔 기간, 교육경력, 직급, 전공영역, 학생실습 지도병원, 참여횟수, 등록비 부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수 목적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53, p=.014). 사후검정에서 연수목적이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한 대상자의 만족도는 60.42±6.91점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한 대상자의 만족도 53.68±10.82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15).

간호학 교수들의 교수효능감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들의 교수효능감 총점은 평균 89.08±10.29(항목 평균 4.24±0.49)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 영역 평균 33.54±4.25점(항목 평균 4.19±0.53), 수업전략에 대한 조절감 영역 평균 23.80±3.71점(항목 평균 3.96±0.61), 학생에 대한 리더십 영역 평균 31.72±3.87점(항목 평균 4.53±0.55)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이, 임상경력, 임상을 그만둔 기간, 교육경력, 직급, 학생실습 지도병원, 참여횟수, 등록비 부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영역(F=2.78, p=.014)과 연수 목적(F=3.39, p=.039)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전공영역이 성인간호학인 경우 교수효능감 90.23±7.90점과 기본간호학 전공인 경우의 교수효능감 91.16±6.59점에 비해 기초간호학 전공자의 교수효능감이 72.20±23.85점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45, p=.043). 연수목적이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and teaching efficacy (N=73)

Variables	Mean ± SD	Min	Max
Satisfaction			
Program management	3.87 ± 0.66	1.25	5.00
Program contents	3.71 ± 0.62	1.50	5.00
Program effectiveness	4.08 ± 0.64	1.60	5.00
Total score	3.88 ± 0.56	1.47	5.00
Teaching efficacy			
Confidence of major knowledge	4.19 ± 0.53	1.50	5.00
Regulation of instructive strategy	3.96 ± 0.61	1.33	5.00
Leadership for student	4.53 ± 0.55	1.57	5.00
Total score	4.24 ± 0.49	1.48	5.00

<Table 3>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and teaching efficac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Satisfaction			Teaching efficacy			
		Mean±SD	t or F Scheffe	p	Mean±SD	t or F Scheffe	p	
Age	Less than 40 years	55.62±12.63	1.93	.152	86.00±15.94	2.51	.088	
	41 ~ 50 years	57.57±7.65			87.93±8.39			
	More than 51years	60.75±5.53			92.70±6.74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Less than 5 years	58.63±8.18	0.66	.520	87.80±11.43	1.02	.367	
	6 ~ 10 years	55.85±9.78			91.57±8.59			
	More than 11years	59.16±8.68			91.16±6.29			
Period of resignation from clinical practice	Less than 5 years	57.00±12.20	0.35	.709	87.00±16.10	0.41	.664	
	6 ~ 10 years	56.85±10.33			89.71±8.09			
	More than 11years	58.76±6.88			89.66±8.15			
Experience as nursing faculty	Less than 5 years	57.54±11.08	1.08	.345	88.83±12.89	0.65	.525	
	6 ~ 10 years	55.83±5.21			86.41±6.06			
	More than 11years	59.80±6.18			90.40±8.49			
Position	Full-time lecturers	57.71±11.57	0.11	.954	87.66±14.97	0.34	.799	
	Assistant professors	58.33±6.63			88.57±6.85			
	Associate professors	57.57±7.67			91.00±7.04			
	Professors	59.11±7.50			89.88±9.52			
Major area	Adult Nursing	56.93±7.62	1.06	.401	90.23±7.90①	2.78	.014	
	Biological Nursing	51.60±17.32			72.20±23.85②			
	Community health nursing	60.66±6.11			91.66±3.05			
	Fundamental Nursing	60.94±8.54			91.16±6.59③			
	Maternity Nursing	56.57±7.11			85.71±10.95			①③>②
	Mental health nursing	57.50±6.36			94.50±12.02			
	Nursing management	62.16±5.77			92.16±5.38			
	Pediatric Nursing	59.50±5.70			88.50±3.53			
Clinical training institut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University hospitals in metropolitan area	57.62±9.28	1.21	.312	86.18±13.73	2.03	.118	
	Regional university hospitals	57.94±7.73			89.38±7.33			
	Secondary hospitals in metropolitan area	53.00±8.54			94.00±1.00			
	Regional secondary hospitals	62.55±8.86			95.00±6.46			
Number of participation	Once	57.50±10.76	0.29	.749	86.00±14.01	1.44	.243	
	Twice	57.63±8.89			90.68±8.59			
	Three times or more	59.13±6.30			90.20±7.67			
Registration fee	Support of colleges	58.52±9.16	0.45	.651	89.72±11.90	0.74	.461	
	One's own charge	57.56±7.32			87.84±6.16			
Goal of participation	Helpful in lecture	60.42±6.91①	4.53	.014	91.09±7.60①	3.39	.039	
	Help to guide clinical training	53.68±10.82②			84.00±14.75②			①>②
	Self-development	57.50±7.24			90.08±7.79			

여한 대상자의 교수효능감 91.09±7.60점이 실습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한 대상자의 교수효능감 84.00±14.75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42).

세 개 하부영역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0, p<.001). 만족도의 세 개 하부영역과 교수효능감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에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보완시켜 주는 중요한 제도인 교수임상연수(Budden, 1994)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간호학과 교수들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들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점 3.88점(5점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and teaching efficacy

	S2	S3	Satisfaction	T1	T2	T3	Teaching efficacy
S1	.756 ($<.001$)	.617 ($<.001$)	.873 ($<.001$)	.411 ($<.001$)	.414 ($<.001$)	.410 ($<.001$)	.474 ($<.001$)
S2	1	.671 ($<.001$)	.925 ($<.001$)	.529 ($<.001$)	.478 ($<.001$)	.394 ($<.001$)	.540 ($<.001$)
S3		1	.861 ($<.001$)	.391 (.001)	.389 (.001)	.443 ($<.001$)	.469 ($<.001$)
Satisfaction			1	.506 ($<.001$)	.484 ($<.001$)	.466 ($<.001$)	.560 ($<.001$)
T1				1	.684 ($<.001$)	.642 ($<.001$)	.902 ($<.001$)
T2					1	.563 ($<.001$)	.856 ($<.001$)
T3						1	.845 ($<.001$)

S1: program management S2: program contents S3: program effectiveness

T1: confidence of major knowledge T2: regulation of instructive strategy T3: leadership for student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중등교사들의 연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허희숙, 2008)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만족도 평점 2.9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부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생을 교육할 때 효과적이었다는 프로그램 참여결과 영역이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내용 영역이 3.71점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한 간호학 교수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시에 연수내용이 도움이 됨으로써 만족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수목적이 ‘강의에 도움을 얻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들이 ‘임상실습지도에 도움을 얻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들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이 간호학 이론 강의에서 생생한 임상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임상연수의 가장 큰 이점이 최신 임상지식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연구보고와 일치한다(Budden, 1994; Stein, Fujisaki, Davis, & Maclean, 2012). 임상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간호학 학문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임상 현장을 관찰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간호학 연구에 비해 중요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Becker et al., 2007).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에서 많은 신설 간호학과가 생겨난 상황에서 간호학 교수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입 간호학 교수의 교육 역량은 간호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 교수가 생생한 임상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로 교수임상연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나이는 40대 33명(45.2%), 50대 이상 24명(32.9%)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50대 이상 간호학 교수들의 참여가 높은 것은 임상경력이 5년 이하인 대상자가 47명(64.4%)이며 임상현장을 그만 둔지 11년이 넘은 대상자가 50명(68.5%)이나 된다는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50대 이상의 간호학 교수들이 임상경력도 짧은 편이고 임상현장을 떠난지 오래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영역별 분포에서 성인간호학 전공자 31명(42.5%)와 기본간호학 전공자 18명(24.7%)으로 많은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성인간호학이나 기본간호학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 32명의 대상자들은 정신간호, 모성간호 등 다양한 전공분야로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병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나, 현재 병원 시스템에서 따로 연수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실사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일부 전공영역에서는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중 간호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하여 교수들이 직접 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참여형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숙박시설의 불편을 지적한 대상자가 13명(17.8%)이었고 연수병원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거주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각 병원에서 게스트하우스나 간호사 기숙사 등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2명(16.5%)

의 대상자들은 연수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교수임상연수에서도 시간의 부족이 연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 결과와 일치한다(Williams & Taylor, 2008). 따라서 각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회 차원에서 병원측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평가회에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과 함께 시간의 조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내용에 추가되기를 바라는 항목에 대해 34명(46.5%)의 대상자는 직접간호를 관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1명(42.5%)의 대상자는 치료시술을 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의 교수임상연수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과도한 업무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즉, 미국의 교수임상연수는 간호학 교수가 직접 임상현장에서 환자 간호를 공유하는 entrepreneurial model을 이용하여 참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실정과는 다르다(Williams & Taylor, 2008).

또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은 임상간호사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간호학 학문의 전문성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Budden, 1994). 즉, 간호학 교수를 지지해줄 그룹을 형성하여 연구의 주제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 근거기반간호(evidence-based practice)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간호학 교수들의 참여로 공동연구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학문모델인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합한 triad model에 따라 통합하기를 제안한 Newland와 Truglio-Londrigan (2003)의 주장처럼 향후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 영역뿐 아니라 임상과의 연구주제를 찾아가는 collaboration model로 발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임상경력이나 교육 경력에 따라 교수효능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 영역에 따라서는 교수효능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과는 황은영(2006)의 국내 4년제 일반대학 중 어문계열, 상경계열, 공학계열 및 사범계열의 전임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효능감은 강의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는데, 이는 황은영(2006)이 교수효능감의 구성요인별 강한 예측력을 갖는 변수들은 대학교수의 개인적 특성들 보다는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특성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대상자의 전공영역이 기초간호학인 교수는 성인간호학 전공과 기본간호학 전공 교수보다 교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황은영(2006)이 전공지식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확보되었을 때

교수들은 높은 교수효능감을 갖는다고 보고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간호학 교수로서 기초의학 등 기초간호학 과목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나 교수방법에의 어려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기초간호학을 교육하는 교수들 중 기초과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매우 소수인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Tmobranski, 1993), 향후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의 3개 하위영역인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 수업전략에 대한 조절감 및 학생에 대한 리더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간호학 교수에게 적합한 교수효능감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수임상연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허희숙(2008)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과 연수 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박영신과 김의철(2003)도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자기를 잘 조절하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연수만족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수효능감이 교수 임상연수프로그램 성취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해주므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지도하는 교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년간 4회 교수임상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한 간호학 교수들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교수들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연수 만족도를 높이려면 대상자들의 전공과 연수목적을 고려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에서 주최한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간호학과 교수들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73명의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χ^2 를 사용하였으며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들의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총점은 평균 58.19±8.54(항목 평균 3.88±0.5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반적 프로그램운영 영역 평균 15.49±2.64점(항목 평균 3.87±0.66), 연수프로그램 내용 영역 평균 22.27±3.75점(항목 평균 3.71±0.62), 프로그램 참여결과 영역 평균 20.42±3.19점(항목 평균 4.08±0.64)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나이, 임상경력, 임상을 그만둔 기간, 교육경력, 직급, 전공영역, 학생실습 지도병원, 참여횟수, 등록비 부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연수 목적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53, p=.014).

● 대상자들의 교수효능감 총점은 평균 89.08±10.29(항목 평균 4.24±0.49)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공지식에 대한 자신감 영역 평균 33.54±4.25점(항목 평균 4.19±0.53), 수업전략에 대한 조절감 영역 평균 23.80±3.71점(항목 평균 3.96±0.61), 학생에 대한 리더십 영역 평균 31.72±3.87점(항목 평균 4.53±0.55)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직급, 학생실습 지도병원, 참여횟수, 등록비 부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영역(F=2.78, p=.014)과 연수목적(F=3.39, p=.039)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교수임상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0, p<.001). 만족도의 세 개 하부영역과 교수효능감의 세 개 하부영역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 첫째, 교수 임상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장기적으로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종적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교수효능감이 교수임상연수프로그램 성취 및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됨에 따라,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7(1), 37-54.

박정혜, 전인숙 (2008).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9(2), 99-110.

정호준 (2010).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윤솔 (2010). *미술관 박물관 교사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

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허희숙 (2008). *중등교사의 연수에 대한 지각과 연수효과 분석: 사회적 지원, 교사효능감, 직무성취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천.

황선영, 이은주, 나덕미, 이광숙, 선광순, 이정숙 (2002). 신규 간호사의 임상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8(2), 261-271.

황은영 (2006). 대학교수의 교수효능감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73-98.

Allen, D. (2000). Faculty practice: a model to bridge the theory-practice divide.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5(10), 504-510.

Becker, K. L., Dang, D., Jordan, E., Kub, J., Welch, A., Smith, C. A., & White, K. M. (2007). An evaluation framework for faculty practice. *Nursing Outlook*, 55(1), 44-54.

Budden, L. (1994). Nursing faculty practice: benefits vs cos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6), 1241-1246.

Elliott, M., & Wall, N. (2008). Should nurse academics engage in clinical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28(5), 580-587.

Hickey, M. T. (2010). Baccalaureate nursing graduates'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instructional experiences and preparation for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6(1), 35-41.

Knox, J. E. & Mogan, J. (1985). Important clinical teacher behaviours as perceived by university nursing faculty, students and graduat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0, 25-30.

Newland, J. A. & Truglio-Londrigan, M. (2003). Faculty practice: facilitation of clinical integrations into the academic triad model.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5), 269-278.

Rogan, M. K., Crooks, D., & Durrant, M. (2008). Innovations in nursing education: Standard development for nurse educator practice.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24(3), 119-123.

Stein, S. M., Fujisaki, B. S., Davis, E., & Maclean, L. G., (2012). A 1-day course to improve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health professions faculty members.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76, 1-15.

Tmobranski, P. H. (1993). Biological sciences and the nursing curriculum: a challenge for educationalis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493-499.

Williams, A. & Taylor, C. (2008). An investigation of nurse educato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undertaking clinical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28(8), 899-908.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and Teaching Efficacy*

Park, Young Im¹⁾ · Yoo, Kyung Hee²⁾ · Bang, Kyung-Sook³⁾ · An, Gyeong-Ju⁴⁾ · Lee, Sun-Ock⁵⁾

1)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2)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3)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5)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and teaching efficacy and their relationships among nursing faculty who joined clinical training program. **Methods:** In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seventy three nursing faculty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sponsored by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from July 2010 to February 201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χ^2 ,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rough the SPSS WIN12.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was 3.88 ± 0.56 , and 4.24 ± 0.49 for teaching efficacy. Teaching efficacy showed associations with Major area ($F=2.78$, $p=.014$) and Goal of participation ($F=3.39$, $p=.039$). The results presented that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fficacy ($r=.56$, $p<.001$). **Conclusion:** This study reports high satisfaction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and teaching efficacy for nursing faculty.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lient-focused program that meets the goals of participation and major areas for nursing faculty.

Key words : Nursing professor,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Teaching efficacy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Gyeong-Ju An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586,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360-764, Korea

Tel: 82-43-229-8992 Fax: 82-43-229-7988 E-mail: antheresa@cju.ac.kr